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작품 연구(1)

류 종 렬*

차 례

- | | |
|---|-------------------------|
| I. 서론 | IV. 단편소설 「지옥 안내(地獄 案内)」 |
| II. 『동양지광』과 이주홍의 일문 작품 | V. 결론 |
| III. 시 「여기는 대해의 한복판(ここ
は大海の眞只中)」과 「전원에서
(田園にて)」 | |

국문초록

이 글은 이주홍의 『동양지광』에 수록된 일문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일제 말기 이주홍의 대일협력이라는 역사인식의 문제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의 작품 전부를 다룰 수 없기에, 먼저 잡지 『동양지광』의 성격과 이곳에 실린 이주홍의 일문 작품 목록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그의 문학 작품 중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의 수필과 논설류 그리고 만화와 표지화는 원고를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첫째, 『동양지광』은 박희도가 1939년 1월 1일에 창간한 사상 관련 일문 종합 월간지이다. 이 잡지는 중일전쟁 이후 민간 조선인에 의해 조선에서 창간된 최초의 친일적인 사상지로, ‘녹기연맹’처럼 자발적인 내선일체 운동 단체의 월간지였다. 이 잡지는 사상지였기 때문에, 『국민문학』 등과는 달리 문학 작품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작가들의 일본어로 쓴 작품들이 실려 있다. 이주홍도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삼화를 제외하면, 총 37편이었다. 이 중 수필·논설류가 4편, 시 2편(1편은 수필 속에 있음), 단편소설 1편, 평론 1편, 만화 10편, 표지화 20편 등이다. 대개가 대일 협력적인 내용이다.

둘째, 시 「여기는 대해의 한복판(ここは大海の眞只中)」과 「전원에서(田園にて)」는 각각 1943년 11월호와 1944년 5월호에 실려 있다. 「여기는 대해의 한복판(ここは大海の眞只中)」은 청년들에게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시다. 「전원에서(田園にて)」는 전원의 일상적 삶 속에서도 태평양 전쟁 상황을 궁금해 하는 내용의 시이다. 전자는 대일 협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후자는 일상성과 시국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

셋째, 단편소설 「지옥 안내(地獄案内)」는 1943년 12월과 1944년 1월에 2회로 나누어 발표된 작품이다. 전체 줄거리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지옥사자가 지옥으로 안내하여 지옥의 참상을 목격하게 하고, 가짜 루즈벨트를 만나 전쟁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 작품은 동아협력체론이나 대동아 공영권의 이론적 바탕 위에 미국을 비판하고 일본을 칭송한 작품이다.

주제어 : 이주홍의 일문 작품, 동양지광, 일제 말기, 대일 협력

I. 서론

일찍이 임종국은 『친일문학론』 ‘부록’의 ‘관계 작품 연표’에서 이주홍의 일문 작품 다섯 편을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① 『磐谷先生とその(과그)弟子達(들)』(東洋之光 42.12·수필) ② 『青年と道義』(東洋之光 43.7·수필) ③ 『地獄案内』(東洋之光 43.12·~44.1·단편소설) ④ 『田園にて』(東洋之光 44.5·시) ⑤ 『幸福への(에의)示唆』(東洋之光 45.1·수필)=權煥詩集「倫理」에 관해서”¹⁾

이후 이주홍 문학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문 작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박경수가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시를 연구하면서 시 『전원에서』를 번역하고, “비록 일어로 쓰여진 한계는 있으나, 이 시는 소박한 소시민적 일상을 담담하게 묘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²⁾라고 해석하고 있다.

박태일은 경남지역 문인들의 친일 활동을 연구하면서 “일문으로 씌여진 작품이 몇 있으나 부왜 빛깔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독특한 개성이 흥미를 끈다.”라고 하였다. 또한 각주를 통해 “이주홍이 일문 작품을 주로 발표한 곳은 『東洋之光』이다. 1942년에서 1945년까지 모두 여덟 편에 걸치는 수필, 시, 단편을 발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콩트 「地獄案内」(『東洋之光』12월호·1월호, 1943~1944)는 그 무렵 일본문단에서도 찾기 힘든 환상문학으로서 흥미를 끌만하다.”라고 평가하였다.³⁾ 박태일은 임

1)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476쪽. 임종국은 그러나 이 작품들에 대한 해설은 덧붙이지 않았다. 이는 이 책 ‘범례’에서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 중 중요한 사람은 권말의 인명해설로써 그 무렵의 간단한 직위를 설명했으며, 작가 및 작품론에서 논하지 못한 작가 또한 권말의 관계 작품 연표로써 대체하였다. 단, 이미 논의된 작가들은 중복을 피하였다“(8쪽)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주홍은 본문에서 중요한 작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2) 박경수,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시 연구」, 류종렬 편저, 『이주홍의 일제 강점기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2004. 166-167쪽.

중국에 비해 3편의 일문 작품이 더 있다는 점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제목을 제시하지 않았다.

류종렬은 『이주홍 소설 전집』을 엮으면서, 소설 「지옥 안내」를 번역하고, 부록의 ‘이주홍 소설 서지’에서 간단한 서지를 밝히면서 “이 작품은 일문으로 되어 있으나, 친일적인 색채는 없다.”라고 하며, 박태일의 설명을 수용하였다.⁴⁾

그리고 최근 조남현은 『한국 현대 소설사』에서 「지옥 안내」에 대해 “이주홍의 친일적 태도가 강고해진 나머지 미국을 적대시하게 된 일문 소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⁵⁾

이들 연구 중 박경수와 조남현의, 시 「전원에서」와 단편 소설 「지옥 안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평가를 제외하고는 일문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임종국이 밝힌 “①『磐谷先生とその(과그)弟子達(들)』 ②『青年と道義』 ⑤『幸福への(에의)示唆』=權煥詩集 「倫理」에 관해서” 등은 아직까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①과 ②를 임종국은 수필로 분류하고 있는데, 에세이류의 수필이다. ⑤는 권환의 시집 『윤리』에 대한 한 쪽 분량의 간단한 서평 형식의 평론인데, 임종국은 이를 수필로 분류하고 있다. 권환은 향파와 아주 가까운 사이로 둘 다 월북하지 않은 카프작가였다.

이들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것은, 시와 소설이 아닌 장르인데다 일문으로 써어져 내용 파악이 힘들었고, 일부 논설류는 서두의 내용과 전체 작품의 의미가 다른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주홍이 일문으로 쓴 작품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은 『동양지광』 1939년 4월부터 1939년 9월까지 연재한 「時事漫畫」이다. 이 만화는 ‘咸雲’이

3) 박태일, 「경남 지역문학과 부왜활동」,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I』, 청동거울, 2004. 109쪽. 그는 「지옥 안내」를 ‘콩트’라 하였으나, ‘단편소설’임.

4) 류종렬 엮음, 『이주홍 소설 전집』 제1권, 세종출판사, 2006. 420-458쪽(일문과 번역본), 497쪽(서지)

5) 조남현, 『한국 현대 소설사』 2, 문학과 지성사, 2012. 648-649쪽.

란 필명으로 발표된 것이다. ‘함운’이 이주홍인 근거는 만화 하단에 향파가 표지화나 삽화 또는 만화를 그릴 때 쓰는 싸인(★CHOW)이 있기 때문이다.

이주홍이 일문 작품을 발표한 곳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동양지광』뿐이다. 『동양지광』에 수록된 그의 일문 작품은 표지화나 만화를 제외하면 일곱 편이다.

이 글은 이주홍의 『동양지광』에 수록된 일문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일제 말기 이주홍의 대일협력이라는 역사인식의 문제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의 작품 전부를 다룰 수 없기에, 먼저 잡지 『동양지광』의 성격과 이주홍의 일문 작품 목록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그의 문학 작품, 즉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권환의 시집 『윤리』에 대한 서평은 영인본의 상태가 좋지 않아 해독할 수 없어서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리고 수필, 논설류, 만화와 표지화 등 다른 작품들은 원고를 달리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II. 『동양지광』⁶⁾과 이주홍의 일문 작품

- 6) 『동양지광』은 2005년 ‘도서출판 울타리’에서 영인한 영인본 9책을 저본으로 하였다. 영인본에 수록된 『동양지광』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책(1939.1, 1939.2, 1939.3, 1939.4), 2책(1939.5, 1939.6, 1939.7, 1939.8), 3책(1939.9, 1939.10, 1939.11, 1940.1), 4책(1941.12(속간호), 1942.1, 1942.2, 1942.3), 5책(1942.5, 1942.6, 1942.7, 1942.8), 6책(1942.10, 1942.11, 1942.12, 1943.1), 7책(1943.3, 1943.4, 1943.5, 1943.6, 1943.7), 8책(1943.8, 1943.9, 1943.11, 1943.12, 1944.1, 1944.2), 9책(1944.3, 1944.4, 1944.5, 1944.6, 1944.7, 1944.8, 1944.9·10, 1944.11, 1945.1)” 이들 중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살펴보자. 첫째, 1939년 9월호는 판권 표기가 없음. 둘째, 1942년 1월호의 판권에 발행일이 ‘1941년 12월 1일’로 되어 있음(오기인듯). 셋째, 1942년 5월호의 판권에 발행일이 ‘1942년 4월 1일’로 표기됨. 넷째, 1943년 5월호 판권 부분이 없음. 다섯째, 1944년 8월호의 판권이 ‘1944년 3월 1일’로 표기됨. 여섯째, 1944년 10월호의 표지가 ‘11월호’로 중복되어 제시되어 있고, 판권은 ‘1944년 10월 1

『동양지광』⁷⁾은 박희도(朴熙道)가 1939년 1월 1일에 창간한 사상 관련 일문 종합 월간지이다. 이 잡지는 중일전쟁 이후 조선인에 의해 조선에서 창간된 최초의 친일적인 사상지로, 1939년 1월부터 패전 때까지 계속 발간되었다. 이 잡지는 조선 거주 일본인에 의해 발간된 『녹기(綠旗)』와 더불어서 중일 전쟁 무렵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지라고 할 것이다.⁸⁾

이 잡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주홍은 『동양지광』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1939년 1월 창간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39년 4월호부터 「時事漫畵」를 그리기 시작했고, 1942년에는 「時事漫畵」(속표지화)를, 그리고 1943년 3월부터는 표지화를 1945년 1월까지 그린 것이다. 또한 잡지의 중간 중간에 있는 삽화도 많이 그렸다. 직접 편집에 관여하지는 않은 듯 하지만, 많은 작품을 실었기 때문이다.

이 잡지의 발행인인 박희도는 YWCA 간사로 삼일운동에 참가하였다. 최연소 민족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그는 기독교측의 운동자금을 출납하면서 김원벽 등의 학생 운동자를 포섭하였다. 그는 미결 구류 삼

일'로 제시됨. 그리고 영인본에 수록되지 않은 잡지는 '1939.12, 1940.2 ~ 1941.11, 1942.4, 1942.9, 1943.2, 1943.10, 1944.12' 등이나, 1940.2 ~ 1941.11까지는 발간이 중단된 듯 하다. 1941년 12월호가 속간호이기 때문이다. 발간이 중단된 이유에 관해 임종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박희도가 이처럼 열성적인 친일 활동을 했는데도, 총독부는 한때 '이 잡지가 종이 소비에 비하여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발간 중단을 종용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수완'이 좋은 박희도의 간청으로 총독부에서 '인쇄용지 배급권'을 다시 주어 1941년 12월부터 다시 속간 되었다."(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친일과 99인 ③』, 1993. 돌베개, 165쪽.)

7) 김근수는 『한국잡지사』(청록출판사, 1980, 241쪽)에서 “『동양지광』은 정치 및 시국 문제 중심의 이론 잡지로서 친일 일색의 반민족적 월간지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박희도, 그 발행소는 동사, 1939년 7월 1일에 창간, 1945년 5월 15일 통권 83호로 중단되었다.”라고 기술하였다. 여기서 '1939년 7월 1일 창간'이라고 하였으나, 오식인 듯하다. 영인본을 살펴보면, '1939년 1월 1일'이다. 그리고 영인본은 '1945년 1월호'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중간호가 언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8) 김승구, 「중일전쟁기 김용제의 내선일체문화운동」,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61쪽 참조.

백육십 일 통산 징역 2년을 받았다. 출옥한 박희도는 좌파 청년 김명식, 신일용, 유진희의 편집진으로 주간 『신생활』을 발행하면서 비타협 급진의 언론 향쟁을 계속하였다. 이 잡지는 제11호-제14호까지 내리 4호가 발금된 끝에 1923년 1월에 발행 정지를 당한다. 1922년 11월에 구속된 박희도는 2년 남짓을 복역하였다. 이후 1926년 10월 박희도는 자치운동단체 연정회의 부활 계획에 참가하였다. 이듬해 2월에 신간회가 창립되자 박희도가 본부간사로 선임된다. 일제는 비타협 노선을 걷는 신간회를 자치운동단체로 전환시키려 하였고 연정회 계열에서도 주도권의 장악을 모색하였다. 신간회가 해소된 후에 박희도는 신우회를 거점으로 해서 최린 등의 자치론자로 접촉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들 자치론자의 일부는 만주사변-중일전쟁기에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친일로 기울어 갔다. 1939년 1월 박희도는 일문 친일 월간 『동양지광』을 창간함으로써 ‘일본정신 양양의 한 수양도장’으로 삼았다.⁹⁾

그는 창간호의 권두언으로 실은 「창간에 즈음하여」라는 글을 통해 “동양인의 동양을 현현하는 역사적 신단계에 올라가는 날도 또한 멀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럴 때 반도 이천만 동포의 마음에 일본정신을 철저히 하고, 황도정신을 양양하고, 폐하의 적자로서, 황국일본의 공민으로서, 예외 없이 국체의 존엄을 체득하고, 황국일본의 대사명을 받들어, 황도의 선포, 국위의 선양에 정진하고, 이로써 동양의 평화는 물론 소위 팔굉일우의 일대이상을 펴서, 세계 인류문화의 발달과 그 강령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일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이 대의를 이해하고 이 이념을 체득할 때 일본 국민으로서의 광영과 긍지를 감득하지 않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¹⁰⁾

이리하여 사장 박희도는 ‘조선인 스스로가 자진해서 마음속으로부터

9) 임종국 지음,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138-139쪽.

10) 『동양지광』, 1939. 1, 4쪽.

일본 국민이 되어 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다.¹¹⁾

창간호에는 당시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역시 「피로써 역사를 철하자」라는 축사를 기고한 바 있는데, 이로써 박희도를 중심으로 한 『동양지광』의 창간이 총독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에 기반하여 이뤄진 일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미나미는 중일전쟁이 “일본, 만주국, 중국 사이의 민족 단결, 동아연맹의 신조직을 현출하는 큰 기운”¹²⁾을 일으켰다고 중일전쟁의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침략전쟁의 본의를 왜곡하고 있다. 박희도 역시 미나미와 같은 맥락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바, 이는 중일전쟁이 조속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지자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내각이 내세운 침략 전쟁의 논리인 ‘동아신질서(東亞新秩序)’, ‘동아 협동체(東亞協同體)’ 담론과 같은 맥락을 가진 것이다.¹³⁾

창간호에는 총독 미나미 외에 총독부와 관변조직의 인사들의 축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간사 현영섭(玄永燮)의 축사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1938년 1월 『조선민족의 나아갈 길』이라는 저서를 통해 내선일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던 현영섭은 이처럼 『동양지광』이 내선일체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창간호에 축사를 실은 인사들이 대부분 총독부 관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관료 출신 민간 조선인 현영섭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영섭은 황도문화의 조선 전파에 앞장서 온 녹기연맹(綠旗聯盟)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조선인이었던 것이다. 1938년 1월 녹기연맹에 가입한 후 그는 같은 해 7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으로 옮겨갈 때까지 녹기연맹원의 이름을 걸고 강연과 집필을 통해 정력적으로 내선일체운동을 벌였다.¹⁴⁾ 이후에도

11) 임종국 지음,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앞의 책, 139쪽.

12) 『동양지광』, 1939. 1, 4쪽.

13) 이준식, 「파시즘기 국제 정세의 변화와 전쟁 인식 - 중일전쟁기 내선일체론자들을 중심으로」, 방기중 편,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해안, 2005, 105쪽. 김승구, 앞의 논문, 62쪽에서 재인용.

그는 『녹기(綠旗)』와 새로 창간된 『동양지광』 등의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다. 창간 축하에 이어 그는 1938년 7월호에 「사변의 인류사적 의의와 내선일체의 동아협동체완성에의 기여-사변제2주년을 맞이하여 생각한 것」이라는 글을 통해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 백인을 몰아내자는 식의, 여느 일본인 일본주의자 못지않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동양지광』은 그 당시 내선일체 담론의 주무대로 기능하고 있었다. 『동양지광』을 무대로 ‘동양신질서’, ‘동아협동체’ 담론에 기반한 각종 논의가 왕성하게 펼쳐졌고, 황도사상에 기반한 내선일체, 전쟁 협력의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¹⁵⁾

또한 동양지광사는 전속극단 협동예술좌를 운영함으로써 신극 황민화의 기수 역할을 한다.¹⁶⁾ 1939년 9월 25일-26일 부민관에서의 제1회 공연은 김승구 작인 배영극(排英劇) ‘동풍’이었다. 영국자본침략에 항쟁하던 중국 청년이 죽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이토록 야만적인 영국놈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가? 놈들의 폭행에 맞서서 감연하게 싸우자! 우리 뒤에는 동양평화를 위해 싸우는 우리 동지 일본제국이 있음을 잊어서 안된다.”¹⁷⁾ 친일적 내용의 연극을 서울은 물론 함북, 간도, 상해 등지까지 순회공연하게 하였다.

그런데 박희도가 이처럼 열성적인 친일활동을 했는데도, 총독부는 한 때 ‘이 잡지가 종이 소비에 비하여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발간 중단을 종용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수완’이 좋은 박희도의 간청으로 총독부에서 ‘인쇄용지 배급권’을 다시 주어 1941년 12월부터 다시 속간되었다. 박희도는 이 속간호에 「총후 국민의 급선무」라는 친일논설을 게재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반도호텔에 신흥우, 정춘수, 전필순, 정인파, 양

14) 정혜경·이승엽, 「일제하 녹기연맹의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10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6, 350~352쪽. 김승구, 앞의 논문, 63쪽에서 재인용.

15) 김승구, 앞의 논문, 64쪽.

16) 협동예술좌의 부서 소개는 1939년 9월호의 89쪽 참조.

17) 임종국 지음,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앞의 책, 139쪽.

주삼 등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장장 7시간에 걸쳐 이른바 ‘미·영타도 좌담회’를 개최하여 그 사회를 자신이 직접 보았으며, 그 내용을 이듬해 2월호에 특집으로 게재하였다.

속간 무렵부터 이 잡지가 친일 논조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박희도는 징병제 실시 발표에 대하여 1942년 6월호에서 그는 「진심으로 헌납하라」라는 글을 통해서 “그러므로 현시의 반도 총후에서 국민의 헌납운동이 날로 치열화 되고 있음은 기쁜 경향이지만 그럼에도 더욱이 중요한 것은 충군애국의 진심이 진정으로 그 헌납품에 들어 있는가 하는 문제다. . . . 하물며 세계에 으뜸인 황군병사로서 제1선에 참가할 때 죽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 조국과 동포를 위하여 한 목숨을 헌납할 때 그 죽음은 자기 동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한 죽음으로 실로 인간 최고의 영예인 것이다.”라고 하여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하여 젊은이들의 ‘목숨을 헌납’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1944년 3월호에서도 「결전 비상의 때(秋)—결기하라 반도청년」이라는 글을 실어 청년들의 전쟁참여를 독려했다.¹⁸⁾

이리하여 박희도는 정치 사상계 친일파의 거두로 1937년 9월 6일 학무국 주회 시국강연반에 참여하였다. 1943년 11월 6일부터는 강원도에서 학병 독려의 강연 행각을 벌인다. 그는 국민총력조선연맹에 참가, 조선임전보국단에는 평의원으로 참가하였다. 1945년 6월 8일 창립인 조선언론보국회의 참여가 됨으로써 박희도의 친일은 8.15 전야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¹⁹⁾

특히 이 잡지는 다른 한편으로 이런 운동의 중심 인자가 될 소지가 있는 조선 내의 전향자들의 교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미우라 이치로[三浦一郎]는 「반도의 사상전향자에게 준다—한 일본주의자의 입장에서」라는 글을 통해서 “내지의 전향자에게는 갈 곳이 정해져 있지만, 반도의

18)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친일파 99인 ③』, 165쪽.

19) 임종국 지음,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앞의 책, 140쪽.

전향자에게는 그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²⁰⁾고 말함으로써 조선의 전향지식인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일본주의의 참 뜻을 정확히 이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우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일본주의가 구미에서 기원한 각종 이데올로기와는 차별성을 지닌 독특한 정신이라는 점이다. 일본주의는 특정한 집단의 이기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팔괘일우(八紘一宇)와 같은 사랑의 정신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함으로써, 조선의 지식인에게 사상의 포기로서의 전향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의 획득, 즉 진정한 의미에서 전향을 이루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당대의 일본이 가진 부정성이 구미의 각종 사상에 의해 오염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인 미우라에 이어 박희도 역시 조선의 전향자들의 진정한 전향을 요구하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전향자의 새로운 진로」²¹⁾라는 글을 통해 그는 “사상인의 전향이라는 말도 이미 낡은 말이 되어, 평범한 울림 밖에 주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조선 지식인이 전향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한때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로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일반 민중에게 인간적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식인이 “확신과 정열을 가지고, 새로운 일본정신 하에서 민중운동의 선두에 서서 지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동양지광』은 총독부뿐만 아니라 녹기연맹과의 내적 교감 하에서 민간 조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어용단체라고 하기보다는 녹기연맹처럼 자발적인 내선일체 운동의 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²²⁾

20) 『동양지광』, 1939. 3, 23쪽

21) 『동양지광』, 1939. 6, 2-3쪽

22) Uchia Jun, 현순조 역, 「총천력 시기 재조선 일본인의 '내선일체' 정책에 대한 협력」, 『亞細亞研究』13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29쪽. 김승구, 앞의 논문 64-65쪽.

박희도의 출자로서 운영된 동양지광사는 최린, 윤치호와 동사 이층에서 대륙경제연구소를 주재하던 일인 겸전(兼全澤一郎)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있었다. 이사로는 방태영, 박팽서, 박희도, 장덕수, 이기진, 이희섭, 이영찬, 한백하, 원익섭, 최광호, 최윤주, 김희선, 김인현, 김선필, 신희우 등을 두었다. 실무진은 전원 좌익전향자로, 조공 일본총국 책임자였던 김한경, 카프의 시인으로 4차의 피검경력을 갖는 김용제, 광주의 좌익운동자 강영석과, 모스크바 공산대학 출신 여기자 고명자 등이다.²³⁾

이 잡지는 사상지였기 때문에, 『국민문학』 등과는 달리 문학 작품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다. 작품을 실은 작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곽종원, 김소운, 김용제, 김용호, 김종한, 박승극, 박영호, 박영희, 백철, 엄호석, 유치진, 이광수, 이동규, 이석훈, 이주홍, 이 찬, 정비석, 정인택, 조용만, 홍효민, 구자길, 김경린, 김경수, 김경희, 김본중희, 성산창수, 오용순, 이윤기, 조우식, 조연현, 최병일, 평소문보, 현 훈 등이다.²⁴⁾ 이 중

23) 임종국 지음,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앞의 책, 140쪽.

24) 『동양지광』에 수록된 이들의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곽종원(郭鍾元, 岩谷鍾元)**: 「積極性の追求」(1944.3. 평론); 김소운(金素雲): 「愛吟詩鈔 (1)(2)(3)」(1939. 3-5, 번역); **김용제(金龍濟, 金村龍濟)**: 「戰爭文學の展望」(1939.3. 평론), 「民族的感情の內的清算」(1939.4. 수필), 「內鮮一體の歌」(1939.4. 시), 「朝鮮文化運動の當面の任務」(1939.6. 평론), 「亞細亞詩集(一)~(七)」(1939.7~11, 1940.1, 1941.12, 시), 「國民文學の黎明期」(1942.1. 평론), 「新春日記」(1942.2. 수필), 「現實の言葉」(1942.7. 수필), 「徵兵詩抄」(1942.7. 시), 「異土」(1942.8. 정지용 시 번역), 「鍾」(1942.8. 시), 「一二月八日」(1942.12. 시), 「童話」(1943.8. 시), 「青年詩集(一)」(1944.2. 시), 「青年詩集(二)」(1944.3. 시), 「青年詩集(三)」(1944.4. 시), 「青年詩集(四)」(1944.9·10. 시); **김용호(金容浩)**: 「饒舌る話」(1943.9. 수필), 「山麓」(1943.9. 시); **김종한(金鍾漢)**: 「弱冠」(1942.6. 시); **박승극(朴勝極)**: 「蛙」(1942.8. 수필), 「瓜」(1942.10. 수필), 「僧」(1942.11. 수필), 「米」(1942.12. 수필), 「墓」(1943.1. 수필), 「綿」(1943.4. 수필), 「燈」(1943.5. 수필), 「叭」(1943.7. 수필), 「草」(1943.12. 수필), 「希望の歌—權煥『自畫像』」(1943.11. 평론), 「牛」(1944.3. 수필), 「兎」(1944.5. 수필), 「土」(1944.6. 수필), 「水」(1944.9·10. 수필); **박영호(朴英鎬)**: 「第二のドンキ・ホーテ」(1944.11. 수필); **박영희(朴英熙)**: 「戰線紀行(一),(二)」(1939.9-10); **백철(白鐵)**: 「時局と文化問題の行方」(1939.4.), 「文學的理想性(一), (二)」(1942.6~7. 평론); **엄호석(嚴浩奭)**: 「強き國民精神とエスペラント」(1939.4. 평론), 「告

김용제가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하였는데, 그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양지광사의 사업부장, 편집주임, 동양지광사의 전속극단인 협동예술좌의 문예부 객원으로 재임하였다. 1942년 9월 편집주임직을 사임

白と文學(1942.12. 평론), 「青年と處世」(1943.3. 수필), 「幼な友」(1943.4.번역); **유치진(柳致眞)** : 「拉濱線にて」(1942.10. 수필); **이광수(李光洙)** : 「折りに歌」(1939.2.), 「山家日記」(1939.8.); **이동규(李東珪)** : 「西洋人考」(1942.5. 수필), 「花郎と尙武精神」(1942.7. 평론), 「李朝の女流詩瞥見(一),(二)」(1942.8, 1942.10. 평론) 「報道演習」, (1943.7. 수필); **이석훈(李石薰(牧洋))** : 「進まう日章旗と共に」(1942.3. 수필, 축하문), 「先生たち」(1942.8. 소설), 「血縁」(1943.8. 단편소설), 「新らしさについて」(1942.6. 평론); **이찬(李燦)** : 「せめてよく死に」(1944. 3.시); **정비석(鄭飛石)** : 「知識人」(1942.7. 수필); **정인택(鄭人澤)** : 「晩年記」(1942.5. 소설), **조용만(趙容萬)** : 「車中のこと」(1942.7. 수필); **홍호민(洪曉民)** : 「인생의 도」(1942. 1.); **구자길(具滋吉)** 「繪のある葉書」(1943.11. 시); **김경린(金瓊麟)** : 「新しさと時代性」(1943.1. 평론), 「若さの中で」(1943.6. 시); **김경수(金耕修)**, 「新しき日(一),(二)」(1939.5-6, 소설); **김경희(金景熹)** : 「新しさについて」(1943.1. 평론), 「春の抒情」(1943.4. 시), 「夏草の章」(1943.7. 시); **김본종희(金本宗熙, 본명불상)** : 「青年と文學」(1943.6. 평론), 「戰爭と文學」(1944.1. 평론), 「鍊成記」(1944.2. 수필), 「伝統と仕奉の問題」(1944.11. 평론); **성산창수(城山昌樹, 본명불상)** : 「わかものうた」(1942.10. 시), 「臉の裏の彼奴」(1943.12. 시) 「詩壇寸感」(1944.2. 평론), 「わかさのうた」(1942.10. 시), 「青年隊記」(1943.6. 수필); **오용순(吳龍淳)** : 「明日の私」(1942.7. 수필), 「すめしつみひかり」(1943.5. 和歌); **이윤기(李允基, 大村謙三)** : 「北支戦線追憶記」(1942.5. 수필), 「徴兵制實施に當りに」(1942.6.), 「陸軍將校への道」(1942.7.), 「戦ふ志願兵(一), (二), (三)」(1942.10~12. 중군수기), 「兵營生活①,②」(1943.3-4. 수필), 「平原を征く(1)(2)(3)(4)(5)(6)(7)」(1943.5~12. 중군수기); **조우식(趙宇植)** : 「神州風」(1942.8. 시), 「故郷にて」(1942.11. 시), 「歴史の自覺と共に」(1943.1. 평론), 「白糸露人の村を訪ねて①,②」(1943.4-5. 수필), 「儒成農民道場を見る」(1943.6. 수필), 「讀後感」(1943.6.), 「扶輪中堅青年修鍊所訪問記(上)(下)」(1943.7~8. 수필); **조연현(趙演鉉, 徳田演鉉)** : 「東洋への郷愁」(1942.5. 평론), 「亞細亞復興論序説」(1942.6. 평론), 「岡倉天心について」(1942.8. 평론), 「ニーチェ의創造(上)(下)」(1942.12~1943.1. 평론), 「文學者の立場」(1943.1. 평론), 「芸術の機能(上)(下)」(1943.7~8. 평론), 「青春斷想」(1943.5. 수필); **최병일(崔秉一)** : 「或る晩」(1943.1. 소설), 「便り」(1944.6. 소설); **평소문보(平沼文甫, 본명불상)** : 「藝術は直觀する」(1942.10. 평론), 「國民詩의理想と人間」(1942.11. 평론), 「生意氣の倫理」(1943.1. 평론), 「より高くより遠く」(1944.4. 수필); **현훈(玄薰)** : 「山また山」(1945.1. 소설)

할 때까지 박희도를 도와 이 땅에 ‘내선일체와 황도선양’의 실현을 위해 진력한 시인이다.²⁵⁾ 그는 시뿐만 아니라 수필, 논설, 소설, 평론 등도 발표하였다. 이주홍도 김용제 다음으로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으나, 표지화나 만화가 대부분이다.

필자가 조사한 이주홍의 일문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만화도 포함하였다.

- ① 「磐谷先生とその(과 그)弟子達(들)」(『동양지광』 1942.12)
- ② 「學制改革と 學徒の覺悟」(『동양지광』 1943.3)
- ③ 「青年と道義」(『동양지광』 1943.7)
- ④ 「街頭瑣談」(『동양지광』 1943.11)
- ⑤ 「地獄 案内」(『동양지광』 1943.12~1944.1)
- ⑥ 「田園にて」(『동양지광』 1944.5)
- ⑦ 「幸福への(에의)示唆」(『동양지광』 1945.1)=權煥詩集 「倫理」에 관해서
- ⑧ 「時事漫畫」(『동양지광』 1939.4.咸雲)
- ⑨ 「時事漫畫」(『동양지광』 1939.5.咸雲)
- ⑩ 「時事漫畫」(『동양지광』 1939.7.咸雲)
- ⑪ 「時事漫畫」(『동양지광』 1939.8.咸雲)
- ⑫ 「時事漫畫」(『동양지광』 1939.9.咸雲)
- ⑬ 「戰爭漫畫 吼 へろ太平洋」(『동양지광』 1941.12)
- ⑭ 「時事漫畫」(속표지화), (『동양지광』 1942.10)
- ⑮ 「時事漫畫」(속표지화), (『동양지광』 1942.11)
- ⑯ 「漫畫の一年」, (『동양지광』 1942.12)
- ⑰ 표지화(『동양지광』 1943.3)
- ⑱ 표지화(『동양지광』 1943.4)
- ⑲ 표지화(『동양지광』 1943.5)
- ⑳ 표지화(『동양지광』 1943.6)
- ㉑ 「學生風俗時評」(『동양지광』 1943.6, 만화만문)

25) 임종국, 「김용제론」, 『친일문학론』, 221쪽, 김용제의 친일활동은 이 책의 221-232쪽과, 김승구, 앞의 논문, 57-89쪽 참조.

- ② 표지화(『동양지광』 1943.7)
- ③ 표지화(『동양지광』 1943.8)
- ④ 표지화(『동양지광』 1943.9)
- ⑤ 표지화(『동양지광』 1943.11)
- ⑥ 표지화(『동양지광』 1943.12)
- ⑦ 표지화(『동양지광』 1944.1)
- ⑧ 표지화(『동양지광』 1944.2)
- ⑨ 표지화(『동양지광』 1944.3)
- ⑩ 표지화(『동양지광』 1944.4)
- ⑪ 표지화(『동양지광』 1944.5)
- ⑫ 표지화(『동양지광』 1944.6)
- ⑬ 표지화(『동양지광』 1944.7)
- ⑭ 표지화(『동양지광』 1944.8)
- ⑮ 표지화(『동양지광』 1944.9 · 10)
- ⑯ 표지화(『동양지광』 1944.11)
- ⑰ 표지화(『동양지광』 1945.1)

①, ③, ⑤, ⑥, ⑦은 임종국이 『친일문학론』에서 제시한 작품들로서, ①과 ③은 수필인데, ①은 반곡선생과 그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여겨 지지만 실제 의미는 달리 대일 협력적인 내용이다. ③은 당대 청년들의 도의 없음을 비판하고 본래의 동양적, 일본적 도의로 돌아가 청년의 명예를 찾으라는 대일 협력적인 내용이다. ②, ④와 ⑧-⑰은 필자가 새로 이 찾은 작품들이다. ②는 일제 말기인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을 해설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논설류이며, ④는 일상의 서양식 풍속을 비판한 것인데, 모두 대일 협력적인 내용이다. ④에는 제목 없는 시가 한 편 실려 있다. 그런데 ②는 필자가 ‘川原周洪’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주홍(李周洪)의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여겨진다.

⑧-⑰까지는 만화 또는 표지화이다.²⁶⁾ ⑧-⑱은 시사만화와 전쟁만화,

26) 1931년 1월호부터 1943년 1월호까지는 겉표지에 표지화가 없이 잡지명과 호 수, 발행처만 표시되어 있다. 1943년 3월호부터는 겉표지에 이주홍의 표지화가

㉑은 만문만화(만화만문)이다. 그리고 ⑱-⑳과 ㉒-㉓은 표지화인데 복사가 불분명하여 내용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이중 1943년 9월호의 표지화는 흰 머리 수건을 쓴 시골 아낙이 곡식을 키로 까부르는 그림이며, 1944년 6월호의 표지화는 불꽃이 전면에 깔려있는 가운데 일본군이 칼을 들고 있고, 비행기 세 대가 하늘을 날고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1944년 7월호는 군인이 총을 메고 있는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1월호는 가족이 우물가에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목록 외에 잡지에 실린 삽화들도 이주홍이 그린 것들이 많이 보인다.²⁷⁾ 이주홍은 표지화를 그리기 전부터 잡지의 삽화를 그렸다. 이들은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Ⅲ. 시 「여기는 대해의 한복판(ここは大海の眞只中)」과 「전원에서(田園にて)」

시 『여기는 대해의 한복판(ここは大海の眞只中)』은 1943년 11월호에 실린 「가두쇄담」의 끝부분에 실려있는 시다. 제목이 없어 첫행을 제목으로 붙였다. 「가두쇄담」은 3쪽 분량의 수필로서 5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목은 길거리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뜻하지만, 실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장에서는 일상의 서양식 풍속을 비판하면서 충후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양심과 친절은 ‘하나’가 되는 입구이며, 그리고, ‘우리

그러져 있는데, 이는 1945년 1월초까지 계속 되었다.

27) 예를 들면, 1939년 6월호의 ‘권두언(內鮮一體への文化運動)’ 위에 실린 삽화는 다음과 같다.



들의 도의(道義) 정신'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3장은 다음과 같다. “총후(銃後:후방)도 전장이다. 동일하게 국가는 하나를 요청하고 있다. / 하나가 없을 때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 / 지금쯤 골목을 힐끔힐끔 돌아보면서 친절의 상품으로 보살야차(菩薩夜叉:얼굴은 보살, 마음은 야차)의 두 자루 칼을 쓰는 자가 있다면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고, 단연 그 옆의 쓰레기통에 거꾸로 세워야 할 것이다.“ (26쪽) 그리고 4장에서 유한부인(有閑婦人)도 공출을 하라고 하였고, 5장은 다음과 같이 시로써 끝맺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길거리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라는 제목과는 달리, 청년들이 양심과 친절을 갖고 총후(후방)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는 대해의 한복판
누구도 그대를 보고 있지 않다

비뚤어진 주관
숨 막히도록 답답한 사상
적으로부터 얻은
수많은 장난감

아무것도 숨길 것은 없다
단지 그대와 나 뿐이지 않은가
신비스러운 정적은
지금 당신의 정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집어 내는 것은
현명한 청년의 예의인 것이야
비틀림 당한 순정에
손은 중풍 환자와 같이 떨고
주머니에서 나온 손톱 끝에는
아직도 냄새 나는 담배 가루가 묻어있다.

지혜(智慧)하는 태양
파도는 분쇄되어 금속같이 번쩍이고
성스러운 유방에 스쳐가는 갈매기의 저쪽에
수평선은 먼 남쪽 바다에 이어져 있다.

이별의 친구여
나의 옛날 그리운 이름이여
풍덩 뛰어들지 않겠나?
파도는 세례수(洗禮水)에도 닮아 청정하고
새로운 이(理)와 지(智)가
깃발 흔드는 모습으로 나를 부른다.

장미를 뿌릴 필요도 없겠지
이스라엘의 신화와 같게도
여기에 그대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과-양
과-양
적에게 보내는 화약 냄새가
흰나비와 같이 감돌고 오는 바다

등을 두드릴 테니 놀라지 마라
이것이 저 남태평양으로 이어져 있다니
그대(君)!
멋진 이야기이지 않은가.(27쪽)

이 작품은 청년들에게 전쟁, 즉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기점으로 이어진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시다. 대해(태평양)의 한복판에서 전쟁에 홀로 참가하고 있는 청년에게, 그대는 ‘누구도 보고 있지 않지만’, 현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태평양 한복판에서 청년의 길이 열리는데, 그 바다는 “과-양 과-양 적에게 보내는 화약 냄새가 흰나비와 같이 감돌고 오는 바다.”라고 한다. 그리

고 이것이 남태평양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였다. 전쟁의 후방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숨 막히도록 답답한 사상/비뚤어진 주관/적으로부터 얻은/수많은 장난감” 즉, 서양(미, 영)의 퇴폐적 잔해들을 버리고 당당하게 당대의 전쟁 상황을 직시하고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전언을 담고 있다. 후방에 있는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지금 당신의 정직한 고백”이고, 또한 “새로운 이(理)와 지(智)”인 것이다. 수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진 위 시는 결국 시적 화자가 청년들에게 전쟁 승리를 위해 담담하게 독려하는 직접적인 진술로 수렴된다. 즉 “등을 두드릴 테니 놀라지 마라/이것이 저 남태평양으로 이어져 있다니”가 그것이고, 덧붙여서 이 진술을 가능케 한 전체 시의 내용이 “멋진 이야기”라 자부한다.²⁸⁾ 전쟁을 위한 시인의 과도한 의식이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신화”에까지 비교했다고 할 수 있다. 겉으로만 보아도 유장하고 장엄한 수사를 끌어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당시의 징병제와 관련한 일본의 통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중국 침략전쟁을 개시한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 민중에 대한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전력을 보충하고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쓰기 위하여 조선 청소년을 끌어모을 계획을 세웠다.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칙령 제 95호)을 공포, 같은 해 4월부터 이른바 지원병제도를 실시하고, 곧이어 군대식 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나남·함흥·평양·대구 등에 육군 지원자 훈련소가 설치되어 강제적인 동원·훈련이 실시되었다.

28) 이 부분은 이광수가 『늑기』(1943.1, 일문)에 발표한 「전망」이란 작품의 1연과 7연의 앞·뒤 부분과 비슷하다. “그것 필시 멋진 일임에 틀림없도다/이 지구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멋진 세계임에 틀림없도다/우리들이 지금 쌓아올리고 있는 대동아는/보게나, 저 아름답고 풍만한 남방을/저 혹독한 추위와 더위의 북방 광야를/그리고, 그 사이에 펼쳐지는/온화하고 변화무쌍한 우리의 온대를//…(중략)…//이 땅, 이 백성으로 이루어내리라/세로운 세계—황도(皇道)의 대동아를/그 안락, 희열, 아름다움/그 찬란한 빛—그것은 필시 멋진 일임에 틀림없도다” 김병걸·김규동 편, 앞의 책, 12-13쪽에서 재인용.

또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전력을 보다 강화·보충하기 위하여 1943년 7월 「해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하여 해군병지원자 훈련소가 설립되고 마찬가지로의 강제적 훈련이 행하여졌다. 또 전문학교대학 재학생의 「학도지원병」을 강제하였다. 이리하여 1938~43년에 지원병 23,681명이 병영으로 보내졌다.

일본 제국주의는 보다 강권적으로 조선 청소년을 의무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1942년 5월, 1944년도부터 징병제를 시행할 것을 결정하고 「징병제시행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 관계관청과 긴밀한 연계하에서 「징병제도 본지(本旨)의 보급·선전·계몽」, 「호적의 정비」 등을 준비하였다. 또 일본어의 보급, 황국신민으로서의 연성을 이루기 위해 중등학교 이상에 대해서는 현역 장교를 배속시켜 군사훈련을 하고, 국민학교 졸업생은 청년훈련소에, 이를 수료하지 못한 자는 청년특별훈련소에 넣었다. 특히 후자는 1942년 10월 「조선청년특별훈련령」 공포에 의해 설치되어 17~21세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입소시켜 훈육·학과·교련·근로작업 등을 통해 청년의 심신을 단련하여, 장래 징병령 시행 후 군복무에 필요한 자질을 단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국체의 본의」를 명확히 하여 헌신보국의 정신을 기를 것, 「국어(일본어)」의 습득 등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²⁹⁾ 다음과 같은 일본인의 지적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장정에게 이 혼(魂)을 불어넣은 것은 절대로 필요하며, 금후의 일대 문제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혼을 어떻게 주입시킬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째, 신앙심을 일으키는 것, 둘째, 신념을 확고히 만드는 것입니다. 천조대신(天照大神)을 감격과 겸허한 마음으로 신앙하고, 천황폐하를 현율어신(顯律御神)과 대어친(大御親)으로 숭앙하여 절대적인 심경으로 신중하고 받드는 부동의 신념으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장정을 일본병으로 완성시키에는 일반 훈육과 함께 이 혼을 불어 넣는 정신상의 훈육도야를 행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것임을 확

29)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353-354쪽.

신하며,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 힘을 다할 것을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³⁰⁾

이 작품은 일제의 징병제 실시의 ‘강렬한 지도와 계몽’에 연계되어 있다. 말하자면 조선의 청년에게 황국신민으로서의 ‘혼(魂)’을 불어 놓기 위해 씌어진 시이다.

시 「전원에서(田園にて)」는 1944년 3월호에 실린 것으로, 박경수가 번역한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둠 속을
동굴 안을
나는 가만히
아이들의 숨소리를 듣는다.
옆에 놓인 라디오에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전쟁상황을 들으려고
귀를 가까이 세우는데
아이들의 숨소리가
더 높아진다.

늙은이에게
행복이 있으라고 기도하면
땡-
땡- 소리에
아버지가 일어난다.

재떨이를 치는
그리운
금속 소리

30) 田中徳太郎, 『朝鮮人ノ思想ト性格』, 43-44쪽. 박경식, 위의 책, 355쪽에서 재인용.

닭은 또 울려고
 명석을 치는 소리가 나자
 날개를 치기 시작했다.(30쪽)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고즈넉하고 한가로운 일상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런데 일제 말기 태평양 전쟁(대동아 전쟁)의 한복판에 놓였던 이 시의 창작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당시 대표적인 친일 잡지였던 『동양지광』에 일문으로 시를 실은 시인의 내면과, 작품에 형상화된 이미지의 성격에서 그렇다. 전자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동아 전쟁의 침략노선에 협력하게 된 시인의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시에서 표출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과 연관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후자인, 시 이미지의 해석을 통해 드러나리라 본다. 이 작품에 전경화되어 있는 이미지는 ‘소리’, 즉 청각이미지다. 이는 두 가지 대립된 이미지로 변별된다. “아이들의 숨소리”로 대별되는 순수하고 고요한 이미지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전쟁상황”의 소리가 나타내는 폭력적인 현실의 추악하고 공포스러운 이미지다. 이 두 이미지는 제3연의 “재떨이를 치는/그리운/금속 소리”와 마지막 연의 ‘닭 울음’과 “명석을 치는 소리”로 매듭된다. 「전원에서」란 시 제목이 풍기는 분위기와 의미는 실상 작품에서는 결코 양립하기 힘든 시적 현실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드러났다. 시인이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세상이 설렁 평온하고 순박한 세계이더라도 몸담은 현실이 보여주는 부조리한 광경이 알게 모르게 대립되는 모순적인 시적 이미지로 표출된 것이다.

아이들의 숨소리는 자연의 소리와 닮아 있다. 그것은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 공간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 그런데 라디오의 전쟁 상황의 소리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폭력성이 극도로 집약된 소리다. 시인은 지위와 사회적 의지 결정에 무관하게 본래 자연의 공간을 희구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당시 시인이 처한 상황은 시인 본래의 욕망과 관계없이 휩쓸려버린 사회적 자아의 형태가, 폭력적인 일본제국주의의 운명과

함께 묶어버렸던 ‘불온성’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때 시인의 내면은 경미한 분열을 낳는다. 긴장과 불안으로 점철된 이 시기 시인의 내면적 풍경이 ‘소리’의 민감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연적 공간으로 회귀하려는 시인의 본래 내면과, 이와는 상관없이 전시체제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시대 현실이 상충하고 있는 모습이 시에서 구조적 동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박경수는 이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시가 쓰여진 1944년 5월이면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때로 일본의 패색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때이다. 1943년 이미 징병제가 실시되어 한국인들이 전쟁의 희생양으로 강제 동원되었고, 내선일체의 황국사관과 전시 참여를 위한 국민정신을 선동·고무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당시에, 일어로 쓰여진 위의 시는 다행히 이런 시대적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비록 일어로 쓰여진 한계는 있으나, 이 시는 소박한 소시민적 일상을 담담하게 묘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라디오를 통해 전쟁상황에 조용히 귀 기울이면서도 특별히 심각한 역사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늙은이에게/행복이 있으리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이며, 그러다 닭이 화를 치는 소리를 들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새날이 찾아온 것을 일상의 일로 평범하게 받아들일 뿐이다.³¹⁾

그러나 박경수의 해석은 이 작품을 축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1연의 ‘옆에 놓인 라디오에서는 /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전쟁상황을 들으려고 / 귀를 가까이 세우는데’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 ‘심각한 역사 현실의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과 1945년 패전까지는 강도 높은 전시 동원기였다. 그동안 통제 관리해왔던 모든 체제를 전시동원체제로 바꾸고 방송 역시 선전 매체화하였다. 또한 이 시대

31) 박경수, 앞의 논문, 166-167쪽.

는 일제의 방송통제가 절정에 이르러, 제2방송(조선어 방송)의 폐쇄와 조선어의 사용금지, 전파 관제 실시 등 엄격한 통제 속에서 전쟁 뉴스가 보도되고 교양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모두 전시 체제편성을 하였다. 더불어 방송 청취조차 통제되고 단파 수신기의 압수와 청취 탄압 등이 제기되는 등 방송 표현은 물론 방송 수용까지 통제하였다.³²⁾

중일전쟁 이후 강화된 방송통제와 홍보 동원의 역할을 맡던 방송은 태평양전쟁 이후부터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일방적인 보도밖에 하지 못했다. 또한 전쟁기간 동안 라디오 방송은 일본 본토를 포함한 아세아의 방대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전홍보를 강화한다.³³⁾ 다시 말하면,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사회 전분야에 걸친 폭압적인 전시체제의 강요와 함께 ‘보도제일주의’를 주창하여 방송을 식민지 지배를 위한 완전한 선전도구로 전락시켰다.³⁴⁾ 이 전쟁 상황의 보도란 일본의 전쟁 승전에 관한 내용일 뿐이었다.

32) 강혜경, 「일제말기 조선방송협회를 통해 살펴본 방송통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307쪽.

33) 강혜경, 위의 논문, 332-333쪽.

34) 당시의 편성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도부문, 대동아 전쟁에 대응해서 전황의 속보를 비롯해 내외 제 정세에 관한 인식에 철저하게 주력할 것, 특히 제2 방송에 있어 뉴스의 회수를 도모하는 동시에 그 실시에 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한다. ② 강연의 각 부분을 통해 정부의 정책, 군의 전시국방 등에 관해 지도적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한편 민중 가운데에서 쏟아 나오는 힘을 방송에 의해 표현해서 그 국민적 감격을 조장한다. ③ 강연·강좌 부문에 있어서는 국민의 전시의식 양양, 충후국민의 총력발휘, 국민사상의 통일, 영미의 동아침략을 폭로하고 황국필승의 신념을 북돋는 프로그램을 고려한다. ④ 연예부문, 전시국민의 사기를 고무하고 건전 활달, 위안을 주는 취지에 따라 전진문학(戰陣文學), 군가, 군사물어(物語) 등의 종목을 편성함으로써 반도 민중의 내선일체감 및 충후(銃後) 사기의 양양을 도모한다. ⑤ 소국민의 시간, 무적황군의 무력물담(物談), 군가의 방송을 비롯해 대동아공영권 제 지역의 인문지지의 소개에 힘쓴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제는 황국신민화의 양양, 내선일체의 구현, 시국인식의 철저 등에 그 중점을 두고 일본어보급운동, 전시체제하 국민운동의 전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강혜경, 위의 논문. 333쪽.

그러므로 이 작품은 전원의 일상적 삶 속에서도 화자는 태평양 전쟁의 상황이 궁금하다는 내용으로, 양자가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IV. 단편소설 「지옥 안내(地獄 案内)」

「지옥 안내(地獄 案内)」는 1943년 12월과 1944년 1월에 2회로 나누어 발표된 작품이다.

전체 줄거리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지옥사자가 지옥으로 안내하여 지옥의 참상을 목격하게 하고, 가짜 루즈벨트를 만나 전쟁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먼저 이 작품의 플롯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루즈벨트는 가을밤에 홀로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외로움을 느낀다.
- ② 하지만 그는 태평양 전쟁 개전 2주년의 성과를 국민 앞에 보이고, 현재의 시국 탈출을 위해 머리가 복잡하여 환영을 보고 쓰러진다.
- ③ 누군가(그림자의 남자)에 묶여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느낀다.
- ④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걸어서 천국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곳으로 갔으나 성벽의 문은 잠겨 있었다.
- ⑤ 그는 제2의 문을 찾아 헤매나 찾지 못하며 또한 동양적인 극락이라도 찾고자 하나 찾지 못한다.
- ⑥ 그는 그림자의 남자에게 애원하다가 광풍에 의해 서쪽으로 날려갔다.
- ⑦ 그는 거기서 지옥의 모습을 본다.
- ⑧ 그는 그림자의 남자에게 밀려 강기슭에 당도하여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고 있는 2명의 죄인을 본다.
- ⑨ 그는 이어서 등활지옥, 중합지옥, 무간지옥 등의 참상을 목격하고 기절한다.

- ⑩ 그는 구원을 요청하는 최후의 외침을 한다.
- ⑪ 그가 정신을 차리자 신비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다시 걸어가자 길은 사라지고 어둠이 나타난다.
- ⑫ 그는 미국의 항공모함 렉싱턴호와 사라토가호를 발견하고 흥분하지만, 계속 갈수록 쇠덩어리가 된 배가 산처럼 높이 쌓여 있고, 이는 높은 울타리처럼 계속 나타났다.
- ⑬ 그는 어둠 속에서 지옥의 바로 앞 세계를 발견한다.
- ⑭ 그는 많은 망령들을 보는데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1계에서 제9계에 이르는 지옥의 모습과 그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 ⑮ 그는 지옥의 사자들에 의해 백악관으로 끌려간다.
- ⑯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그는 안도를 느끼는데, 거기서 가짜 루즈벨트를 만난다.
- ⑰ 그는 가짜 루즈벨트에게 대일전의 전쟁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그는 중국을 대일방공의 주 진지로 삼기 위해 장개석에 대한 원조상황을 걱정하고, 소련의 전후 패권 전략을 두려워한다. 또한 국내의 탄광 파업도 걱정한다.
- ⑱ 가짜 루즈벨트는 그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위선자 자식’이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가 정신을 차리자 방도 의자도 없어져 버렸다.
- ⑲ 다시 가을밤으로 돌아온다.

전체 구조는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가을 밤에 홀로 백악관 마당에서 시국 탈출을 생각하는 ①-③과,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⑹가 외부 액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환영 속에서 전개되는 ④-⑱까지가 내부 이야기다. 내부 이야기는 루즈벨트가 천국이나 극락으로 가고 싶어 하나,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지옥사자에게 끌려 지옥

으로 가서 그곳의 참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가짜 루즈벨트를 만나 전쟁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크게 들로 나눌 수 있다. 앞의 부분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루즈벨트가 지은 죄가 많아 그 대가를 치루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뒷부분은 가짜 루즈벨트가 진짜 루즈벨트의 위선자적 행동을 비판한 것이다.

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이다. 이를 위해 당시의 태평양 전쟁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1년 12월 6일 진주만을 기습 폭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한동안 승전을 거듭하였다. 홍콩, 보르네오, 마닐라, 싱가포르, 바타비아, 랭군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물론 남태평양의 뉴기니아 일대, 북태평양의 알류산 열도의 요충지도 점령하여 제해, 제공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한 일본군은 태평양 지역에서 제해, 제공권을 상실하고 패색이 짙었다. 이즈음 유럽의 전세도 독일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1943년에 들어서면서 일본군의 패전은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2월에는 가달카날로부터 후퇴하였고, 5월에는 아투섬의 일본군이 전멸당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1월에는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어 후술할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고, 테헤란 회담에서는 소련의 대(對) 일전 참전이 결정되었다.

1944년에 접어들면서 일본군은 패전을 계속하였고 도조 내각은 결국 물러나고 7월에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이 성립되었다. 고이소 내각의 임무는 일대 반격을 도모하여 이를 계기로 연합국과 빨리 전쟁을 종결짓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교섭 제의는 성공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었고 15일에 일본 천황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고 발표하였다. 9월 2일 도쿄 만에 있는 미주리 항공모함에서 맥아더 원수와 시게미쓰 외상간에 일본의 항복문서가 조인되어 제 2차 세계대전은 종료되었

다:35)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볼 때,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본인데, 이 작품에서는 루즈벨트가 전쟁을 도발한 원흉이라고 하였고, 루즈벨트가 진정으로 고민하는 것이 ‘미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내년 선거의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위선자 자식’이라고 몰아 부치고 있다.

「아니, 자네 아직 나의 진정한 고민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군,
「자네가 말하는 그 진정한 고민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가?」
「자네도 알다시피 내년 봄은 선거가 있지 않나!」
「앞장서서 전쟁을 도발한 주제에 선거가 어떻다는 거야」
「미국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그는 이 말을 듣자마자 불꽃이 튀듯 테이블을 두들기면서 벌떡 일어섰다.

「미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그래서 자네는 퀘백 회담 직후 참모총장 며칠을 반주축군 총사령관으로 진출시키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를 그 지위에서 쫓아내고 현 육군 보급 부장의 사령관 소마빌에게 그 실권을 부여하여 백악관에 박아두었지. 그러면 측근에는 심복 프킨스도 대신원 판사 프랭 크홀터도 옆에 있으니 만사 오케이, 지금으로서는 월키도 내년 봄의 출마를 공식 발표하겠지. 만약 공화당이 맥아더 같은 군인 후보라도 출마시킨다면, 그 대항마로 소마빌을 자신의 대통령 후보로서 내보낼 것이다. 음, 이것이 미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감히 말하건데, 백악관이야말로 육군의 통수사항(統帥事項)에 간섭하고, 이를 정치 문제에 이용하려는 음모단의 소굴이라고!」

그는 테이블이 부셔져라 마구 두들겨 댔다. 진짜 루즈벨트는 본능적으로 엉겨주춤 일어서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자네! 자네는 바로 내가 아닌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니까 하는 말 아닌가? 이 위선자 자식」
그는 과당탕 의자를 내던지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35)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780-781쪽.

루즈벨트는 이 갑작스런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³⁶⁾

이러한 내용은 주요한이 『신시대』(1942.1)에 실은 「루즈벨트여 답하라」라는 짧은 수필에도 나온다. “정의(正義) 인도(人道)의 가면을 쓰고 착취와 음모를 일삼는 세계의 방화범, 세계 제일의 위선 군자(君子) 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 루즈벨트군/연미복을 입은 신사, 기실은 약탈 강도를 일삼는 해적 괴수 대영제국 총리대신 처칠군/위대한 어릿광대 두 군을 앞에 놓고 10억 아시아 대중의 이름 아래서 질문하노라/루즈벨트여, 그대는 입을 열면 반드시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지마는 파리강화조약 서문에 인종과별 철폐 문안을 삽입하려 할 때에 이것을 반대하여 삭제한 것은 어느 나라며 흑인과 동양인을 국내에서 차별대우하여 한 좌석에 앉지도 못하게 하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사냥을 하기로 마치 야수사냥 하듯 한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것이 그대의 인도며 그대의 정의였더냐/서반구에 대하여는 몬로주의를 주장하여 간섭과 방해로 일삼으니 이 어떠한 모순당착의 일인가/ …(중략)… /그러나 그대들의 악운은 이미 다 되었다. 만주사변을 방해하고 지나사변을 방해하고 독일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의 소련과 야합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국을 남북으로 포위하여 동아 정복의 야망을 달하려는 그대들의 음모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파사검((破邪劍)이 일섬(一閃)하는 곳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³⁷⁾ 미국이나 영국에 대한 배격과 비판은 이 작품이나 주요한의 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었다.

아울러 중국의 장개석에게 원조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여하튼 중국 대륙을 대일 반공의 주진지로 삼아야 하며 그 막대한 투자 또한 헛되게 할 수 없어.”라든지, “그게 글썄 미묘한 내막이… 물론 그

36) 류중렬 엮음, 『이주홍 소설 전집』 제1권, 2006. 457-458쪽.

37) 김병걸·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집』, 실천문화사, 1986. 148-149쪽에서 재인용.

차관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중국 대륙의 기지화, 경제적으로는 중국 개발 사업의 장악이지만, 영국도 끼어들 테니 성가신 문제지.”³⁸⁾ 등으로, 중국을 대일 반공의 주진지와 군사적 기지로 삼고, 아울러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소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괴로워한다.

「그러나 소련은 전후(戰後)에 있어 우리 미영(美英)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제2전선을 전혀 실행하지 않게 되면, 전후(戰後)에 있어 발언권이 그만큼 약해질 테니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두통거리지.»

「정말 그렇군. 사실 지금도 소련은 이탈리아를 포함하는 지중해 전역(戰域) 일대의 점령지 행정에 관한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에 우리가 미영 양국 주재 대사의 후임으로 이류 삼류의 외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그들이 알제리의 거물인 비신스키 제1외무차관을 배치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에 대한 노골적인 강력대항의 의도라고 생각되는군.»³⁹⁾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 그들은 다다넬스 해협의 무제한 사용을 원하고 있으며, 인도를 둘러싼 즉 이란, 아프카니스탄, 중국 오지 등을 자기 세력 범위에 편입시켜 정치적 진출 기반을 다지자는 거지.»⁴⁰⁾

소련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후를 염두에 둔 외교적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루즈벨트와 미국의 전략이 세계 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재선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대지』의 작가 펄벅의 이야기를 빌어 “「그건 그래. “대지”의 작가라면 알까? 이 작품의 여류작가인 펄벅조차도 동양인은 일반적으로 백인에게 지배 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일본이야말로 백인의 억압에서 자유를 갈구하는 아시아

38) 류중렬 엮음, 『이주홍 소설 전집』 제1권, 454쪽.

39) 류중렬 엮음, 『이주홍 소설 전집』, 제1권, 455쪽.

40) 류중렬 엮음, 『이주홍 소설 전집』, 제1권, 457쪽.

수백만 민중의 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떠들고 있으니 곤란하지。」
 “41) 라고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
 아신질서’에 대한 내용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조남현의 다음과 같은 해석은 정확하다.

이주홍의 「地獄案内」(『동양지광』, 1943.12~1944.1)는 이주홍의 친일
 적 태도가 강고해진 나머지 미국을 적대시하게 된 일문 소설이다. 루스
 벨트 대통령이 지옥의 사자에게 붙들려 등활지옥(等活地獄), 종합지옥
 (衆合地獄), 무간지옥(無間地獄) 등 아홉 가지의 지옥을 목격하고 진짜
 루스벨트와 가짜 루스벨트를 만나게 하여 미·소·중 중심의 국제 세계
 는 전부 더럽고 황당하고 기우는 국가로, 일본은 승전국가요 이상국가
 로 기록한다. 소련을 경계하는 시선으로 또 임서하의 「성서」(『춘추』,
 1942.3)처럼 미국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태도를 취해 일본을 칭송한
 친일소설이다.⁴²⁾

이상을 통해 볼 때, 이 작품은 미국과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를 비판하
 면서 환영이라는 소설 기법을 통해 일본이야말로 ‘자유를 갈구하는 아시
 아 수백만 민중의 편’임을 드러내는 대일협력 소설로 보아야한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은 동아협력체론이나 대동아 공영권의 이론적 바탕 위에
 미국을 비판하고 일본을 칭송한 작품이다.

V. 결론

이 글은 이주홍의 『동양지광』에 수록된 일문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일제 말기 이주홍의 대일협력이라는 역사인식의 문제도 검토하고자 한

41) 류종렬 엮음, 『이주홍 소설 전집』, 제1권, 454쪽.

42) 조남현, 앞의 책, 648-649쪽.

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의 작품 전부를 다룰 수 없기에, 먼저 잡지 『동양지광』의 성격과 이주홍의 일문 작품 목록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그의 문학 작품 중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양지광』은 박희도가 1939년 1월 1일에 창간한 사상 관련 일문 종합 월간지이다. 이 잡지는 중일전쟁 이후 민간 조선인에 의해 조선에서 창간되어 1945년 일본의 패전 때까지 발간된 최초의 친일적인 사상지이다. 이 잡지는 조선 거주 일본인에 의해 발간된 『녹기』와 더불어서 중일 전쟁 무렵 이후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잡지는 총독부뿐만 아니라 녹기연맹과의 내적 교감 하에서 민간 조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어용단체라고 하기보다는 녹기연맹처럼 자발적인 내선일체 운동의 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잡지는 사상지였기 때문에, 『국민문학』 등과는 달리 문학 작품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작가들의 일문 작품들이 실려 있다. 이 중 김용제가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하였는데, 이주홍도 김용제 못지않게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으나, 표지화나 만화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이주홍의 일문 작품은 삽화를 제외하면, 총 37편이었다. 이 중 수필·논설류가 4편, 시 2편(1편은 수필 속에 있음), 단편소설 1편, 평론 1편, 만화 10편, 표지화 20편 등이다. 대개가 대일 협력적인 내용이다.

둘째, 시 「여기는 대해의 한복판(ここは大海の眞只中)」과 「전원에서(田園にて)」는 각각 1943년 11월호와 1944년 5월호에 실려 있다. 「여기는 대해의 한복판(ここは大海の眞只中)」은 청년들에게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시다. 「전원에서(田園にて)」는 전원의 일상적 삶 속에서도 태평양 전쟁의 상황이 궁금하다는 내용의 시이다. 전자는 대일 협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후자는 일상성과 시국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셋째, 단편소설 「지옥 안내(地獄案内)」는 1943년 12월과 1944년 1월에 2회로 나누어 발표된 작품이다. 전체 줄거리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지옥사자가 지옥으로 안내하여 지옥의 참상을 목격하게 하고, 가짜 루즈벨트를 만나 전쟁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 작품은 미국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비판하면서 환영이라는 소설 기법을 통해 일본이야말로 ‘자유를 갈구하는 아시아 수백만 민중의 편’임을 드러내는 대일 협력 소설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은 동아협력체론이나 대동아 공영권의 이론적 바탕 위에 미국에 대해 비판하고 일본을 칭송한 작품이다.



참고문헌

- 강혜경, 일제말기 조선방송협회를 통해 살펴본 방송통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305쪽-344쪽
- 김근수, 『한국잡지사』, 청록출판사, 1980.
- 김병걸·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집』, 실천문학사, 1986.
- 김병걸·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집2』, 실천문학사, 1986.
-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류종렬 엮음, 『이주홍 소설 전집』 제1권, 세종출판사, 2006.
- 류종렬 편저, 『이주홍의 일제 강점기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2004.
- 류종렬,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 박경수,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시 연구, 류종렬 편저, 『이주홍의 일제 강점기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2004. 166-167쪽.
-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 박태일,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I』, 청동거울, 2004.
- 방민호,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음, 2011.
- 신희교, 『일제말기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역사문제연구소 편, 『인물로 보는 친일과 역사』, 역사비평사, 1998.
-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도서출판 역락, 2006.
-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 임종국 지음,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 조남현, 『한국 현대 소설사』 2, 문학과 지성사, 2012.
- 조진기, 『일제 말기 국책과 체제 순응의 문학』, 소명출판, 2010.
- 최원규 엮음,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1988.
-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 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77.
-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Abstract>

A Study of Lee Chow-Hong's Japanese Works in the End of the Japanese Rule

Rhyu, Chong-Ryeol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analyze the works recorded in 『DongYangJiGwang』 by Lee, chow-hong in detail, to study the meanings and to examine the problem of history awareness at the end of the Japanese rule. As his works cannot be surveyed in this writing, first the nature of 『DongYangJiGwang』 and the list of his works in Japanese were arranged and then the poems and novels of his works were studied. His essays, articles, cartoons, and cover-drawings were examined respectively.

First, 『DongYangJiGwang』 is a monthly magazine of ideology in Japanese launched on January 1, 1939. This is the first magazine of ideology by a private Korean in Joseon after the Sino-Japanese War, which is pro-Japanese and belongs to a group of the integration of an inner line movement like 'NokgiYeonmaeng'.

Japanese writings of many writers appear on this magazine, which doesn't contain many literary works unlike 『National Literature』. 37 of works by Lee, chow-hong, except for illustrations, are contained, which are 4 essays · articles, 2 poems(one of them in essay), 1 short story, 1 review, 10 cartoons, and 20 cover-drawings.

Second, the poem 「여기는 대해의 한복판(ここは大海の眞只中)(Here is the midst of the great sea)」 and 「전원에서(田園にて)(In the

country)」 were carried respectively in the November issue, 1943 and in the May issue, 1944. The former of cooperative content toward Japan is a poem of encouraging the youth to get a victory in the Pacific War, and the latter, daily and of the current situation, is a poem of wondering about the situation of the War living in the country life.

Third, 「지옥 안내(地獄案内)(Hell Guidance)」, a short story, was released in twice in December, 1943 and in January, 1944. The story is that a grim reaper leads the President Roosevelt into hell and makes him watch the horrible scene, and then the President talks about the war with the fake Roosevelt. This criticizes the U.S. and praises Japan based on the East Asia Cooperation System or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Key Words : Japanese works by Lee, chow-hong, DongYangJiGwang,
the end of the Japanese rule, cooperation toward Japan.

■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5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15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